

피어스 기호학에 의한 한국전통공간디자인의 삼원론적 분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Triadic analysis of Korean Traditional Space Design by Peirce's Semiotics

박경애* / Park, Kyung-Ae
허범팔** / Hur, Bum-Pal

Abstract

As today's cultural environment entered the information society, one of the biggest trends of future is the interests of nationalis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terpret interrelation between sign and space design and analyze Korean contemporary space how to universalize traditional conception and attitude in design.

The process of this study is illustrated as follows:

At first, this study contains basic concepts and theories of semiotics and discusses the possibilities of semiotic approaches in spatial designs. Since the most outspoken theorist in this field can be found in writings of C.S. Peirce, American philosopher, the theoretical basis for this research is taken from the Peirce's Semiotics.

Secondly, this research tries the conceptual approaches based on traditional thoughts of Koreans formed with the philosophic background occurred with the universe, religion and the nature. And then, it approaches for the typical characteristics of Korean traditional space to interpret the meaning and adopt the triadic structure of sign. The structure is classified in status, icon, index, and symbol to analyze the Korean contemporary space design.

Finally, it examines the expression structure of the nature of Korea that is succeeded in contemporary space design as the semiotic analysis of the application examples ; and studies the examples that try to set and solve the concept of space in modern society as the real issues in our cultural situations.

키워드 : 피어스 기호학, 문화기호, 한국전통공간, 도상, 지표, 상징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및 의의

정보사회로 진입한 오늘날 문화환경은 사회 경제 기술환경적 관심과 더불어 민족주의에 관심과 개별화에 따른 가치인식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지역의 고유성과 특수성을 함유하려는 공간디자인 환경을 바라보는 관점은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끊임없는 사고와 실험을 바탕으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개념, 가치를 물리적 환경에 어떻게 표현해야 하며, 계속 변화되고 개선되어지는 문화적 형태를 어떻게 변용시켜 가야하는가에 대한 보다 더 많은 가능성을 추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변환기에 할 일은 새로운 양식, 새로운 형태에 대한 발상이 아니라, 우리 것을 재조명, 재검증하여 잠재 속에 묻힌 사고를 추출하는 것이다. 내면에 흐르고 있는 태초로부터 내려오는 사고로써 정체성은 재확립될 수 있으며, 문화의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 본다.

본 연구는 Formation과정을 통하여 Form을 형성함으로써 InFormation을 제시하는, 즉 “공간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InFormation System, 정보체계이다.”라는 관점에서, 기호학적 토대에 좌우되고 있는 피어스(C. S. Peirce)의 기호학을 차용함으로써 관념론적 연역을 가능토록 하는 디자인 분석방식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한국전통공간에서 디자인 요소 및 원리를 추출하여, 문화기호로서 전통적 공간이 내포하고 있는 내용을 알아보고, 오늘날 전통 공간개념을 우리의 문화적 상황 속에서 현실적인 문제로 설정하고 적용하려는 시도를 해석할 수 있는

* 정회원, 한양대학교 실내환경디자인학과 강사, 디자인학박사
** 이사, 국민대학교 실내디자인학과 교수, 공학박사

논리적 분석체계를 한국전통공간의 의미해석과 관련시켜 피어스의 삼원론적 기호유형으로 범주화하여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의미해석과 기호구조의 방법론적 차용을 위한 한국성의 기호학적 고찰로서, 기호로서 한국성에 대한 지원성의 체계를 피어스의 기호체계로 범주화한 한국전통공간과 현대화된 표현특성을 분석하는데 있어, 본 연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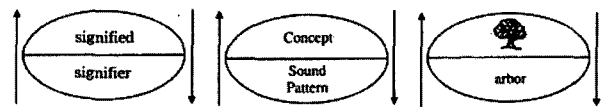
첫째, 기호학의 계보와 기본개념, 이론을 살펴보고, 조형과 공간디자인에서의 기호학적 접근방법에 관한 가능성을 논의한다. 의미작용과 기호작용, 텍스트 구조 등을 살펴봄으로써 공간, 의미, 그리고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특성에 관하여 이론적 기반을 마련한다. 의미론적 경향은 그 기본 입장이 기호학을 취하며, 이러한 접근방식에 대한 가장 두드러진 이론적 표명은 미국의 철학자 피어스의 저작 속에서 발견되고 있으므로 본 연구의 기저가 될 학문적 근거를 피어스의 기호학에서 찾는다.

둘째, 한국성의 관념적 이해로서, '한국성'에 대한 용어정의와 함께 한국인의 우주관, 종교관, 자연관 등 사상적 배경을 가지고 형성된 한민족 고유의 의식과 그에 따른 미학적 이해의 개념적 접근을 시도하고, 전통공간에 나타난 한국성의 공간적, 시각적 표현 특성을 기호학적 체계로서 고찰한다.

셋째, 의미해석과 기호구조의 방법론적 차용을 위한 한국성의 기호학적 고찰로서, 기호로서 한국성에 대한 지원성의 유형을 피어스의 기호체계인 도상, 지표, 상징으로 범주화하여 한국적 공간디자인의 표현특성을 해석함으로써 오늘날 현대공간디자인에 지속적으로 계승되는 한국성 표현의 공간적 특질을 분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마련한다.

된다. 기호론은 기호의 일반적인 연구를 전제로 하면서 언어 기호들을 주변적인 요소로 간주하는 연구분야로 고려될 수 있다. 이에 바르트(R. Barths)는 소쉬르의 정의를 뒤바꾸어 놓았으며 기호론을 언어의 법칙을 토대로 모든 기호체계를 검토하는, 이른바 '언어를 증개로 하는(transtinguistic)' 학문분야로 보았다. 따라서 언어학에 종속되지 않는 기호의 체계들을 연구한다면 <기호학>이란 용어가 더 적합하다고 말할 수 있다.²⁾ 즉, '세미올로지'란 술어는 보다 문학적이며, 이데올로기 차원의 전반적인 비전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반면, '세미오티크'는 과학적이며 통합적인 기획이라는 관념을 암시적으로 내포한다.³⁾

피어스의 기호학은 모든 연구를 포괄하는 지시의 틀로서, 그의 목표는 인간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과 대상세계, 이를 매개하는 기호를 하나의 체계로 설명하자는 것이었다.⁴⁾ 이 말은 곧, 피어스의 이론은 기호학의 모든 구성 부분들을 통괄하는 보편성을 겨냥한다는 보편적 기호학이란 것으로 통한다. 기호를 설명하는데 있어 반드시 개입되는 세 가지 요소, 즉 시니피앙, 시니피에, 지시체 중 어느 하나도 배제시키지 않고 모두 포섭하고 있다. 이것은 구조 기호학에서 지시체를 배제한 것이나 소쉬르 기호학에서 파롤(parole)을 일차적 연구대상에서 누락시킨 것과는 분명한 대조를 이룬다. 구조기호학이 언어학 모델에



<그림 1> 소쉬르의 언어기호 모델 (출처: Ferdinand de Saussure, A course in general Linguistics, New York, McGraw-Hill, 1966, pp.66-67)

기초를 두고 있는 반면, 피어스 기호학은 현상학적 성찰 속에 자리잡는다.⁵⁾ 모든 현상은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일단 기호학적 과정에 편입되면 기호로서 고려될 수 있다는 논지로서, 해석가능성의 공간에는 기호가 들어설 자리가 어디에나 편재함을 의미한다.

피어스 기호학의 두 번째 특징은 방법론적 양상에 속한 것으로서, 철저한 삼원론적 모델로서 설명된다.⁶⁾ 그가 명명한 '세미오시스(semiosis)', 즉 기호작용은 기호가 기능하는 방법을

2)Eco, Umberto, 김광현 역, 기호와 현대예술, 열린책들, 2000, p.19
 3)Parret, Herman, 김성도 역, 현대기호학의 흐름, 이론과 실천, 1995, p.25
 4)철학아카데미, 기호학과 철학 그리고 예술, 소명출판, 2002, p.16
 5)피어스가 『선집』 Peirce, C. H. Collected Paper. Vol I-VI:1931-1935에서 자신의 개념들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하는 자료들과 예들은 미학적, 윤리학적, 논리학적 본질에 속하는 것들이다. 즉 다양한 색채들, 장미향기와 증기기관차의 소리, 음식의 맛, 탁월한 수학적 증명을 명상할 때 느끼는 감동이나, 명곡을 감상할 때의 감정 따위를 비롯해, 명제와 논증들도 중요한 기호들의 범주에 넣고 있다.
 6)피어스 기호학은 의미를 점증적 관계화와 본질로 본 것은 구조 기호학과 흡사하나, 소쉬르의 이원주의와 대조를 이룬다. 엘름슬레우, 바르트, 그레마스 등 구조 기호학이 한결같이 이원적 관계화를 유지해 온 반면, 피어스 기호학에서 모든 관계는 삼항적으로 맺어진다.

2. 기호학의 이론적 배경

2.1. 피어스의 기호학 체계와 기호구조

기호학은 인간과 기호의 상호작용을 파악하는 개념적 분석 도구로서 이러한 초학문적 위상에 의해 모든 기호체계와 관련된 대상을 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기호학은 유럽과 북미에서 거의 동시에 일어났다.¹⁾ 기호학의 학문적 배경을 이루는 스위스의 언어학자인 소쉬르(Saussure F.D.)에 의한 대륙기호학(Semiology)과 미국의 사상가요 논리학자이자 수학자이며 동시에 철학자이면서 자연과학자이기도 한 피어스((Peirce C.S.)의 영미기호학(Semiotics)이 그것이다.

소쉬르를 기준으로 하면 <기호론Semiology>, 피어스나 모리스(Morris)의 의미론을 기준으로 하면<기호학Semiotics>이

1)김경용, 기호학이란 무엇인가, 민음사, 1994, p.13

설명하는 역동적 기호과정인 삼원적 구조를 보여준다. 그는 기호는 표현체(Representamen)와 대상체(Object), 그리고 해석체(Interpretant)라고 하는 '3항적(triadic)' 속성으로 형성된다고 하고, 기호의 유형을 도상(icon), 지표(index), 상징(symbol)으로 구분하였다.

<표 1> 피어스 기호학과 기호의 삼원구조

	1	2	3
표상체로서의 기호	질기호(Qualisign) 성질 또는 속성 자체	존재기호(Sinsign) 실질적 존재	법칙기호(Legisign) 전형화된 일반 법칙
대상체와의 관계로 구성되는 기호	도상(icon) 대상체의 성질을 공유	지표(Index) 대상체와의 자연적·존재적인 인과관계	상징(Symbol) 대상체와의 관습적·규칙적 관계
해석체로 대체되는 기호	술어기호(Term) 가능성의 기호	서술기호(Proposition) 실존적 사실의 기호	논증기호(Argument) 논증의 기호

(출처 : Gerard Deledalle, Charles S. Peirce's philosophy of signs : essays in comparative semiotics, Indiana University Press, 2000, p.19)

존재론적으로 피어스는 일차성(Priméité), 이차성(Secondéité) 그리고 삼차성(Tiercéité)을 구분한다. 피어스의 삼원론은 기호 세계를 이루는 세미오시스의 보다 역동적인 개념을 가능하게 하고 기호학을 기호행동의 논리로서 성립시킨다. 기호관계의 활력은 세 번째 항목인 해석체의 작용에 기인한다. 즉, 세미오시스를 무한대의 (ad infinitum) 과정으로 변형시키는 증개적이며 매개적인 항목이다.⁷⁾

피어스는 기호의 정의와 구조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기호는 자신에 의해 생성되거나 한정되어지는 무엇(something)인가를 대신하고 있다. 기호는 “밖에서부터 무엇인가를 마음속으로 실어다 나르는 하나의 운반기구”이다. 기호가 대신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대상체’이며, 기호에 의해 떠오르는 생각-그것이 실어다 나르는 것을 기호의 의미라고 부르며, 그것이 불러일으키는 관념-이 바로 기호의 해석체이다.⁸⁾ 즉 기호의 공통적인 특징은 ‘대신관계(stand for relation)’인데, 기호를 구성하는 요소를 표상체, 표상체가 대신하는 대상, 표상체와 대상체가 합쳐서 의미를 생성하는 해석체의 세 항목이 서로 연계되면서 ‘삼항적’ 관계(속성)를 갖게 된다.

이러한 접근은 의사소통의 객관적 요소로서의 기호에 의해 산출되는 효과는 분명히 보편성을 지녀 일종의 보편적 법칙을 따른다는 것이며, 해석체의 본질, 즉 기호의 ‘의미’의 본질은 이 지적 습관, 정서적 습관 및 행위적 습관에 있다는 것이다.⁹⁾

피어스에 따르면 기호들은 각기 세 가지의 관점의 삼원법에 근거하여 9개의 범주 안에 분포된다. 우선 기호 그 자체가 있다. 그 다음에는 기호와 그 대상의 관계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기호와 그 해석소의 관계가 있다. 기호체가 삼원구조 속에

서 대상체를 대신하고 해석체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각기 다른 모습과 성격을 피어스는 세 가지 단계로 나누어 구분하였다.

첫째, 표현체의 관점에서의 기호를 질기호(qualisign), 존재기호(sinsign)¹⁰⁾, 법칙기호(legisign)로 구별하였는데, 이는 표현체의 성격에 따른 것으로 질기호란 성질(quality)이 기호가 되는 경우이다. 예컨데 “냄새는 기호로서 작용하기에 특히 알맞다.” 예술에 있어서는 이 역할이 분명 音, 색채, 빛에 주어진다.

둘째, 해석체의 관점에서의 기호의 모습은 술어기호(term), 서술기호(proposition), 논증기호(argument)¹¹⁾ 로 세분화하여 기호의 다각적인 기능과 성격을 설명하였다.

셋째, 대상체와의 관점에서의 기호의 유형을 대상과의 관련성 정도에 따라 ‘도상(icon)’, ‘지표(index)’, ‘상징(symbol)’기호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의 분류는 디자인을 위한 기호의 설명에 특히 유용하다.

피어스의 기호학에 따르면 도상¹²⁾은 다른 모든 기호유형들과 내적으로 상호 연결된다. 도상에 대하여 피어스는 “그것이 성질이건 개체가건 법칙이건 관계없이 모두 그것들이 그 무엇과 닮았고, 그 무엇의 기호로 사용되는 한에 있어서 그 무엇의 도상이다.”라고 말한다. 즉 어떤 기호가 그 대상과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존재한다면 그것은 도상이라 할 수 있고, 따라서 도상은 다분히 재현적인 것으로 그것과 닮은 것의 대응 또는 대치물(substitute)이 되기에 적합하고, 그 기호 자체 성격이 대상체에서 표현된 것이다.

지표는 그것의 대상과 일종의 역동적인 연관성을 지니며 대상의 존재를 확인시켜 준다. 도상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대상과 공통되는 성질을 가진다는 면에서 자의적이지 않다. 지표는 대상체와 실존적 연결을 이루고 있는 기호로서, 대상체에 의해서 실제로 영향을 받고 그 사실에 의하여 그 대상의 기호로서 기능하는 것을 말한다. 지표의 특성은 도상과는 달리 그 대상체와 유사성을 가지지는 않으나 그 대상과 물리적인 인접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대상(object)에 의한 성질의 실제적인 변형”의 결과로 이 성질을 획득하며, 이 때 대상은 기호와 상호작용을 한 ‘흔적’을 지표에 남긴다.

상징이란 어떤 법규나 대개 일반 관념의 연합에 의하여 그

10) “존재기호란... 실제로 존재하는 사물이나 사건이 기호가 될 때를 말한다.” 조각, 조상, 연극은 모두 도상의 예가 될 수 있는데, 이것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사물이나 사건’이다. “법칙기호란 법칙(law)이 기호의 역할을 할 때의 경우를 일컫는다. 모든 관례적인 기호는 일종의 법칙기호이다. 흔히 同意되어 온 바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의미를 갖는 것은 단순한 하나의 대상물이 아니라 일종의 일반적 유형이다.” “모든 법칙기호는 존재기호일 것을 요구한다.” Y.바진, 오병남·윤자경 공역, 현대 예술철학의 흐름, 1996, 예전사, pp.273-276

11) Eco, Umberto, 김광현 역, 기호 개념과 역사, 열린책들, 2000, p.1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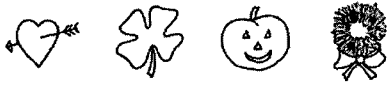
12) Y.바진, op. cit. pp.268-269

7) Parret, Herman, 김성도 역, 현대기호학의 흐름, 이론과 실천, 1995, p.34

8) Charles S. Peirce, Collected papers of Charles Sanders Peirce, Vol.1-6, Harvard University Press, 1932-1935, Vol.2, p.228

9) Ibid., pp.297-298

것이 지시하는 대상을 표의하는 기호로, 그 경우에 그 법칙이나 일반관념의 연합은 그 대상을 표의하는 것으로 해석되도록 작용한다는 것인데, 때문에 상징은 지시대상들의 집합을 지시하는 것으로, 수용자는 두뇌 속에서 이러한 집합에 공통된 성질을 결합시켜, 상징13)에 대한 해석내용을 만든다.14)



<그림 3> 상징기호(출처: D. A. Dondis, A Primer of Visual Literacy, The MIT Press, 1973, p.74)

기호와 마인드(mind)·대상체와 마인드, 각기 다른 두 이중적 관계의 측면에서 볼 때, 만일 기호가 마음의 어떤 기능과는 무관하게 그것의 대상체와 퇴화적(degenerate) 이항관계를 갖는다면 기호는 기호와 대상체 간에 단순한 유사성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도상이라 하며, 만일 기호가 마음으로부터 제공된 정신적 연상으로부터 그것의 대상체와 진정한(genuine) 두 가지 관계를 갖는다면, 그 때 기호는 자연적 기호나 물리적 징후와 유사할 것이며, 이때 그것을 지표라 한다는 것이다.15)

상징은 일반관념의 연합에 의하여 그것이 지시하는 대상을 표의하는 기호로 자의적으로 만들어져 약속에 의해 기호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징의 해석내용은 관습 또는 규약성(conventionality)에 의거하여 대상의 유사성 여부에 관계없이, 또 대상과의 실제적인 연결성 여부에도 관계없이 자신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는 그러한 기호이다.<그림 3>

2.2. 공간디자인의 문화기호학적 접근

기호학은 사회적 삶의 한가운데 있는 기호적 삶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언어의 역사적 발전(Diachronic, 통시성)보다는 언어의 내적 법칙성(Synchronic, 공시성)을 발견하고자하는 것으로, 기호과정과 이해과정의 흐름과 구조들이 연구의 핵심대상인, 기호표현과 기호의미의 구조적 체계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공간은 사물과 사물, 사물과 인간, 인간과 인간 사이의 일련의 상관성으로 생각될 수 있으며, 그러한 상관성은 일종의 패턴과 구조를 가진다. 모든 공간의 설계는 각각의 목적을 위한 시스템과 그에 따른 각각의 규칙들을 갖는 하위체계(sub-system)의 구성으로 생각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것은 그 체계를 이루려는 개인 및 그룹들의 행위, 가치, 목적을 반영한다.16)

13)상징에 대하여 랭거(S. Langer)는 “기호는 우리의 행동을 유발하는 자극으로서 실천적인 작용을 하지만, 상징은 오로지 대상에 대하여 마음에 떠오르는 사념을 유발하는 비실천적 작용을 하는 기호”라고 하였다. 특히 상징기호는 어떤 합의에 따라 다른 현상을 의미하는 모든 현상으로 이해되는 것이므로, 여기서 ‘합의’란 서로 정한 약속을 의미하기에 상징기호에 있어서는 코드의 개념이 가장 잘 대두된다. ‘코드’는 이러한 상징들의 조작을 정돈하는 모든 체계를 의미한다. 철학아카데미, 기호학과 철학 그리고 예술, 소명출판, 2002, p.213

14)가와노 히로시, 진중권 역, 예술, 기호, 정보, 셋길, 1992, p.45 참조

15)Elizabeth Mertz, Richard J. Parmentier, Semiotic Mediation, Sociocultural and Psychological Perspectives, London: Academic Press Inc.1985, p.38

16)Rapoport, Amos, 정무웅 역, 건축환경의 의미론, 대광문화사, 1990,

의미란 미학이론에서 기초적인 주제 중의 하나이다. 심리분석가들은 기억들이 정신을 통해 일깨워지도록 침전되는 마음의 무의식적 구성요소라고 주장했다. 융(C. G. Jung)은 원형이라 불리는 에너지의 중심점-이미지, 개념, 행동 등을 불러일으키는 곳-에 집합적 무의식을 적용시킨 반면, 프로이트는 원형에 개별적 무의식을 적용시켰다. 디자인된 공간의 상징적 의미를 포함해서 상징들은 매개체를 제공하고, 그 매개체를 통해서 원형이 나타난다.

공간의 지원성은 그 공간의 구조가 갖는 공간의 유용성에서 상징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미를 전달하는 것으로, 공간의 상징성은 주변 환경에 대한 사람들의 선호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공간디자이너들의 주요 관심사이다.

학습과 학습에 따른 문화적 차이의 역할은 상징적 의미, 인공물에 대한 선호 정도를 다루는데 특히 중요하다. 가치는 동기유발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가치는 한 개인의 감정적 느낌, 그리고 행동 사이의 연결 고리로 묘사된다. 자기 자신과 자신의 특정한 문화적 물리적 환경과 형태에 관한 태도는 어떤 믿음에 대한 가치의 기여로부터 일어난다. 만약 한 사람이 타인이나 사상(지시대상)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의 태도는 지시대상과 적극적인 관계가 있을 경우 생명력 없는 사물에 대해서도 적극적일 수 있다.17)

모든 문화는 기호체계의 체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런 체계 안에서 그 체계의 종류와 무관하게 한 시니피앙의 시니피에는 새로운 시니피에의 시니피앙으로 바뀐다(언어, 사물, 상품, 관념, 가치, 몸짓 또는 행태체계 모두가 포함된다). 이렇게 기호학은 과학의 형태를 취하는 문화인류학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 그 자체는 그것을 형성해낸 인간의 의식, 사상, 신념 등과 같은 내면세계인 기의를 담고 있는 기호이다. 그리고 우리는 외연적인 물질적 존재형식, 즉 건축공간 등을 그 기표로 지각하고 의미작용을 통해 기의를 추출해내어 그것을 해석한다. 따라서 공간은 디자이너가 의도한 의미와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는 물리적 실체인 동시에 그 사회의 신념과 사건을 기록한 의미전달체계이기도 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구축된 공간은 인간 행태를 구성하고 그 의미를 전하는 문화적 메시지체계이자, ‘인간-공간’간의 커뮤니케이션을 가능케 하는 매개체로 존재한다.18)

에코는 “의미작용이나 전달에 관한 모든 현상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이론적 가능성 및 사회적 기능을 탐구하는 것”을 기호론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 경우에 의미작용과 전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의도의 유무와 약호성의 정도의 차이에는 상

p.236 참조

17)Lang, Jon, Creating Architectural Theory, 조철희·김경준 역, 건축이론의 창조, 1996, pp.152-154 참조

18)권영걸, 공간디자인 16강, 도서출판 국제, 2001, p.326

관없이 인간이 인지하는 한에 있어서의 기호기능(sign function), 곧 어떤 문화적 사상이 그 사회의 어떤 것을 의미한다고 인지되는 형상을 두고 말하는 것이며, 그것이 곧 문화기호론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더욱 '문화의 총체란 의미작용과 전달이다'라고 하는 가설은 바로 문화기호론의 발상의 실마리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전제에서 "문화의 모든 측면은 의미작용의 체계에 바탕을 둔 전달현상으로서 연구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본질적으로 전달을 의도하고 있지 않은 문화적 대상이라 할 지라도, 거기서 인간이 주제적으로 의미나 기능, 가치 같은 것을 읽어낸다는 의미에서는 그 대상은 '언어 비슷한 것', 곧 기호로 간주될 수 있다. 좁은 의미의 의미작용이나 전달의 개념을 이상과 같이 확대·해석하게 되면 모든 문화적 대상은 그 문화 속에서 스스로를 위치 지우는 기호가 되는 것이다. 그것은 소쉬르적인 의미에서의 가치-자의적인 기호에 의한 대상세계의 切分으로 말미암은 차이(difference)에 의해서 소극적으로 규정지어지는-의 세계이다. 무릇 문화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가 가치에 입각한 示差의 기호 또는 전언으로서 포착되면, 그것은 기호론의 방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문화기호론의 이론적 근거는 이러한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추론을 통해서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¹⁹⁾

이와같이 문화라는 것을 인간 상호간의 관계방식과 약속으로 형성된 인공환경이자 일상 삶을 구축하는 사고와 활동 모두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디자인이 즉각적으로 삶의 방식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소통시키는 '문화적 상징의 해석과 창조'에 관여한다²⁰⁾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디자인된 공간은 의미화에 관한 것으로 주로 그 의미의 생산과 창조에 관한 절차적 과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구술적인 언어와 유사한 방식으로 어떤 맥락 내에서 해석됨으로써 특정 메시지를 파생한다.

공간에 대한 이해와 선호도, 공간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 등은 의미가 중요한 변수가 된다. 의미론적 접근방식은 공간요소들의 의미에 중점을 두며, 그 의미라는 것은 대상과 관념 사이의 학습된 연상이라고 할 수 있다. 문자 언어(written language)에 있어서 단어(words)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 특별한 형태의 조합으로 생겨나며, 단어의 형태는 그 언어를 말하는 사람의 마음속에서 형태와 연관된 '개념'의 작용에 의해 '사물'을 의미한다.²¹⁾

공간 또한 어떤 '의미'와 관련된 기호나 표시이며, '공간언어'는 그러한 기호의 체계이다. 언어는 기본적으로 습관이나 선택을 통해 발전되고, 그러므로 특별한 '취향의 문화'를 나타내는 '코드'로서 이해된다.²²⁾ 따라서 공간은 지원성이라는 정보체계

19) 소두영, 상징의 과학 기호학, 인간사랑, 1991, pp.419-422
 20) 김민수, 21세기디자인 문화탐사, 1977, 술, p.11
 21) Lang, Jon, op. cit., p.283 참조
 22) Noberg-Schultz, Christian, 건축의 의미와 장소성, 이경국·진경돈 공역, 미진사, p.189 참조

를 담는 문화체계로서 인간에게 물리적 요소(의미 지시자)를 매개로 연상적 의미를 준다. 물리적 공간의 자극에 의해 인간은 상징적 해석을 거쳐 공간을 이해하고 이로 인해 정서적 인간반응을 보이게 된다. 따라서 문화과정(cultural process)의 산물로서의 공간은 정보를 코드화한다.

3. 전통공간과 한국성

3.1. 한국성의 관념적 이해

공간디자인은 물리적 대상을 매개로 진행되며, 공간은 그것이 속해있는 컨텍스트를 반영한다. 또한 컨텍스트는 개인과 집단이 지닐 수 있는 축적된 정보의 배경, 즉 인식적 배경을 제공한다. 한국의 역사를 통하여 전통공간의 특성을 형성하는데 작용한 중요한 요소는 풍수지리사상, 불교적 세계관, 유교적 세계관, 도가적 자연관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관념들은 한국전통공간의 형성에 다양한 영향을 주었으며, 동시에 한국문화에 바탕을 둔 한국전통건축 특유의 공간도식을 만들어냈다.

(1) 우주관

중국 과학사 연구가 조셉 니담(J. Needham)은 일찍이 송대 성리학의 우주관이 유기체주의라고 하였고, 또한 과정신학 연구가 김정재도 『과정사상과 성리학의 이기설』에서 성리학이 '자연철학' 또는 '생의 철학'으로서 자연을 변화와 생성으로 파악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우주의 생성부터 인간의 심성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대해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설명을 시도한 것으로, "태극이 음양을 낳고 음양은 四象이 되며, 사상은 八卦가 된다. 先天과 後天의 팔괘가 결합하여 주역의 64괘를 이루니, 비로소 세상만물이 이루어진다."는 1-2-4-8-64의 이진법적 논리전개는 동양적 사고의 핵심을 이루어왔다. 음양의 논리는 우주와 인간,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동일한 체계로 파악하는 것으로서 구문명의 뿌리를 형성해온 이원론적 인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며, 이러한 천인합일사상은 이론과 행동, 관념과 현실, 마음과 몸을 일치시키려는 특유의 형이상학으로 발전했다.²³⁾

이 유기체 우주론은 우주만유가 상호연대성을 갖고 있다고 보는 일종의 '생의 철학'이며 우주 자연을 '유기체'로 보는 사상이다. 기개념은 동양 사상사에서 다양하게 쓰여 왔다. 대체로 기개념은 고대 우주론의 형성과 깊이 관련을 이루고 있는데, 그것은 우주만유의 생성과 존재를 이루는 '물질적 질료'라는 의미가 기본성격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우주론적 기개념은 理라는 개념과 함께 형이상학적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주자의 이기론이라는 형이상학에서는 기개념이 단순히 '물질적 기체'로서만이 아니라, 우주만유의 생성과 변화, 만유간의 기에 의한 상호관련과 영향, 또 만유의 생성변화에 있어서의 理와의 공동역할

23) Capra, Fritjof, 이성범·김영정 공역, 현대물리학과 동양사상, 범양사, 1995, pp.161-163

<표 2> 한국 전통공간의 유형적 특성

유형	특성	내용
도상적 형태언어	구조미와 골조미	한국전통공간이 주는 감동은 조금의 장식도 없이 솔직하게 구조들을 노출시킨 데서 비롯된다. 구조미학의 건물 뼈대가 벽체에 투영되거나 나타나는 구성분할에 의한 구조미는 윤리적인 아름다움이라 할 수 있다. 건물의 측면에 드러난 기둥과 가운데 셋기둥으로 나누어지는 벽면은 정교한 비례체계에 구성되고 있어 한마디로 잘 짜여진 커다란 가구이며 건축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건축이 추구했던 이상들을 잘 보여주는 요소이다. 모든 기둥과 들보들은 무의미한 장식을 덧붙이지 않는 꼭 필요한 구조로 이루어졌으며, 전체를 정교한 비례체계에 구성함으로써 미학적 가치를 고도로 끌어올린 것으로 볼 수 있다.
	공간의 투명성	 R. Arnheim, <i>Art의 목조에 대한 깊이</i> 의 레벨 한옥의 공간적 특징인 '중첩과 관입'은 이쪽 방과 저쪽 방 사이의 관계를 폐쇄적 단절로 보지 않고 개방적 연속으로 정의하려는 공간관을 의미한다. 한국전통건축에서 나타나는 투명성의 공간개념은 마당과 자연 등 외부공간과의 시각적 관계에 따른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벽의 유무, 혹은 개구부의 개폐여부에 따라 전개되는 내/외부공간의 시각적 관계는, 비어있지만 시각적 틀을 구성하는 중간영역의 투명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Solid와 Void의 대비관계에 의한 형태적 투명성과 Void가 있음으로써 강조되는 형태적 투명성을 동시에 추구한다.
공간 형성의 지표적 원리	카오스 모스적 질서와 질의 중첩성	 전통공간에서 정주체계의 구성은 우주질서와의 합일에 궁극적인 가치를 두고 있어, 자연을 읽음은 우주질서의 이치를 헤아리는 것이고 집을 앉힘은 이 이치에 부합하여 질서를 부여하는 행위로 인식되었다. 풍수지리설은 이러한 지혜를 집적한 원리로서 정주체계를 구성하는 실제적 지침을 제공하여 왔다. 집이란 우주, 사회, 문화적 질서가 형식화한 소우주로 인식되었으며, 이 가치관에 의해 만들어진 건축 공간은 공통적인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질서는 삶의 근저에서 작동하는 인식의 조건이자 건조행위의 조건으로서, 공간문화의 전개에 있어 그 무엇보다 큰 역할을 한다. 그것은 물질성을 떼어내 버린 상태에서 본질로 드러나는 어떤 것, 즉 시각적 폼이 아니라 이상적 폼이다. 이는 형상으로서가 아니라 시·공간의 흐름을 깨닫고 있는 본질의 표현이다. 무한한 질들을 잠재적으로 내포한 氣들의 펼침이며, 내적 복수성에 의한 다양체, 시간이 가미된 역동적 다양체가 差生을 소화해가면서 스스로의 동일성을 진화시킨 것이다. 즉 질료가 아닌 氣의 差生을 근저로 놓음으로써, 차생의 운동으로부터 형태들이 출현하고 진화하는 방식인 것이다.
	차경과 시지각적 연속성	 Frame of Reference 출처: Lynch, Kevin, <i>주중원역, 단지계획, 동명사</i> , 1983, p.234 공간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물체와 그것을 지각하는 인간과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상호관계에 의하여 형성된다. 따라서 조망(view)은 어느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점에서 자연을 바라보는 태도이며, 이것은 자연에 대한 인간의 적극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카메라의 필터(filter)를 통해 본 경치가 더 아름답게 보이는 경우가 있으며, 나무, 숲, 바위와 같은 자연의 배경물이 사진의 전방에 개입되면 그 사진 전체가 그 사이에 끼인 공간(intervening space)에 훨씬 큰 척도감과 생동감을 주는 효과를 나타낸다. 즉 조망은 'Frame of Reference'를 가지는 폐쇄적 계(enclosed system)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유교건축들은 안에서 밖을 바라볼 때 뛰어난 경관을 얻는다. 서원의 강당 대청에 앉으면 앞의 누각을 통해 중첩되어 나타나는 바깥의 자연 경관이 장관을 이룬다. 다시 말하면 내향적 경관(off site view)보다는 외향적 경관(on site view) 구조를 우선으로 계획한 것이다. 특히 사대부들이 경영했던 정자건축에서 이러한 경관구조를 극적으로 체현할 수 있다. 정자들은 밖에서 쳐다보기 위한 오보제적 건축이 아니라, 안에서 바깥의 경치를 감상하기 위한 프레임으로서의 건축이기 때문이다.
문화적 상징성	인간적 척도와 비례	 공간의 휴먼스케일은 인간의 시각적 요소와 청각적 요소 두 가지에 의하여 결정된다. 한국전통건축은 대체적으로 내부공간에서 8尺角의 방이 기준이 되고 있는데, 이 크기는 시각적으로 친밀하게 느껴질 뿐 아니라 정당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가장 친밀한 작은 공간이다. 또한 외부공간에서 휴먼스케일의 정수는 중정형 마당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네 면이 건물로 둘러싸인 아늑한 중정은 많은 사찰을 비롯하여 서원, 향교, 한옥을 구성하는 대표적 배치방식이다. 한국전통 중정은 대부분 그 크기가 일정한 범위 안에 들어가는 공통점을 보인다. 마당 폭과 건물 높이 사이의 비례가 2.5정도일 때 사람은 중정으로부터 가장 편안한 폐쇄감을 느끼게 된다. 편안한 폐쇄감이라 함은 건물이 네 면을 둘러싸면서도 답답함으로 느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런 수치는 사람이 공간 속에서 아늑함을 느끼며 개방성과 폐쇄성 사이의 적절한 균형감을 느끼게 되는 치수이다. 이것보다 더 벌어지게 되면 건물에 둘러싸여 있다는 느낌이 깨지게 되며, 반대의 경우에는 폐쇄적으로 느껴진다. 한국전통공간에 나타난 스케일과 비례는 그 결정에 있어서 외부공간도 내부와 같이 한정된 공간으로 취급함으로써 개방성과 폐쇄성의 조절 및 내부와 외부공간 간의 순응관계, 그리고 인간의 편안한 심리상태를 고려한 것이다.
	가변성과 유연성	전통건축에서 개개의 실은 고유한 기능을 갖도록 용도별로 구별되지 않고, 어떤 기능에도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 융통성을 갖는다. 형태를 갖지 않은 보자기가 쓰임새에 따라 모양을 바꾸듯, 한국전통건축 특성 중 하나인 가변성은 순환의 사이클이 일어나는 이 땅의 질서에 따른 순환사상이 공간조직에서 드러나는 특징이다. 공간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가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공간감각적인 반응은 주로 창호의 가변성을 통해 다방면에 걸쳐 나타난다. 내외부의 경계를 조절하는 창호의 구성기법은 靑靑로 인한 공간과 공간의 통합과 분리로 나타난다. 한국전통공간은 '間'이라는 모티브시스템으로 되어있어 가족의 수의 증감, 또는 사용방식에 따라 방과 방사이의 문의 척탈로 두 개의 공간을 하나로 통합하거나 분리하고, 한 간을 덧붙여 증축하기도 하는 융통성을 지닌다.
변화와 운동	자연 주의적 이미지	인위적인 기교를 부리지 않고 자연스러운 것을 존중하는 미의식은 우리 문화의 대표적 특징로 지속성을 갖고 있다. 한국전통건축에 일관되게 나타나는 특성으로 자연과의 융합을 들 수 있다. 이는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 자연과의 합일을 최고의 이상으로 삼은 농본주의적 가치관과 무관하지 않다. 이와 같은 자연주의적 평등이미지는 자신을 드러내거나 남의 눈에 띄고자 하는 욕망이 배제된 순수하고 겸허한 감동적인 아름다움을 부여한다. 이러한 인위를 거부하는 자연미의 철학은 노장의 '무위자연'과 연관이 있으며, 이러한 소박함은 자의식적으로가 아닌 무의식적으로 절제하는 것이므로 그 표현에 한계가 없는 아름다움을 부여한다.
	변화와 운동	주거건축, 불교건축, 유교건축 등 거의 모든 한국전통건축은 그 자체의 기능을 위한 건축을 만들면서, 동시에 자연과 함께 하는 건축을 만들었고, 또 거기에 합당한 공간도식을 형성하였다. 이러한 배치방식과 공간형식은 건축적 질서와 조직이 없음을 뜻하는 것이 아닌, 규칙적이고 정적인 공간이 아니라 정제되고 생동적인 공간으로, 닫힌 공간이 아니라 자연과 주변 환경으로 열린 공간을 뜻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한국전통 공간형식의 핵심은 정적인 관계에서가 아니라, 운동 중에 있는 연속된 관계와 이들 관계로 형성된 공간의 진입에서부터 절정에 이르는 일종의 起, 承, 轉, 結을 이룬 공간의 변화와 진화에 있다.

등, 氣의 유기체 우주론을 설명하는 형이상학적 개념, 즉 '존재의 기본인 것이다.

한편으로는 음양과 오행을 연관시켜 설명, 氣의 '질료적 분화'를 더욱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氣개념은 물질적 기체라는 면에서도 더욱 의미가 확대되었다. 이 '음양오행론'은 그 후 동양 사상에서 '존재(생성)의 원리'로서 일반화되었다. 결국 氣는 만유를 생성 변화시키는 기본존재로서 인간과 우주는 이 氣 때문에 서로 통하고 우주는 氣의 교류장소가 되는 것이다.

(2) 자연관

우리의 전통사회에서 자연과 문화는 대립적인 존재라기보다는 마치 소리와 그 반향처럼 하나의 우주질서 속에서 서로 대응하며 보완하는 존재로 인식되었다. 도가사상에 있어서 인간은 우주와 자연으로부터 분리할 수 없는 부분으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인간은 자연이 지니는 성격을 따라야 하며, 자연을 받아들이고 그것과 일치되도록 생활해야 하는 규범을 가지고 있었다. 도가에서 말하는 도란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자연법칙이자 우주의 본체이며, 무위는 인간이 이러한 도에 거스름이 없이 따라야 할 가장 궁극적인 원칙으로서, 이러한 특성에서 지세와 지형 등 주어진 물리적 환경 특성에 따라 이를 잘 활용하도록 건물의 위치와 형태가 주위환경과 적절하게 융화되어 유기적 관계를 지니도록 계획된다.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고, 하늘은 도를 본받으며, 도는 자연을 본받는다.(人法地, 地法天, 天法道, 道法自然 - 『도덕경』, 34장)노자에 있어서 '자연은 일컬음이 없는 말이며 궁극의 말'로서 도가 자연을 본받는다라는 자연을 도보다 상위에 둔 것이다.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며 우주의 전체적 질서 속에

서 삼라만상과 교감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가정은 한국의 건축에 나타난 공간개념으로부터 찾아볼 수 있다.²⁴⁾ 공간과 인간의 대립적 긴장을 스스로 거부하고, 장자의 “모든 것을, 그것이 자연스럽게 하는 대로 허용해주면 그 본성이 충족될 것이다.”라는 말과 같이 이른바 무위에 자신을 맡겨 왔다.²⁵⁾

(3) 종교관

조화론적이고 전일적인 사상은 동아시아 삼국의 사상적 기반이 된 儒佛道 3敎의 사유형식에서 공히 나타난다. 불교사상이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인 면이 강하고, 유교가 현실적이고 이지적이며 남성적이고 행동적이며 지배적인데 반하여, 도교는 은둔적이고 직관적이며 여성적이고 신비적이며 순응적인 면을 갖고 있는 바와 같이 삼자는 서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방법이 대립자의 양극을 돌로 보지 않고 하나의 잠재적인 통일성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공통적인 사유형태를 갖고 있다.²⁶⁾ 계획부터 시공까지, 건축실천의 과정을 동양적인 인식론으로 환원하자면 體-相-用의 三大로 개념화할 수 있다. 삼대론은 동양적 사유의 근저에 깔리는 개념이 으로서 이는 六大로 발전하는 불교적 인식에도 적용되며, 이기론적 성리학의 근원이 되기도 한다. 一心의 체상용은 단지 세계를 분절한 것이 아니라 用을 통해 體가 드러나고 用이 相을 만들고 相이 用을 품듯 순환적인 것이기에, 이를 통하여 텍스트의 의미를 드러내면서도 숨은 의미의 가능성을 남겨둘 수 있다.²⁷⁾ 이런 원리를 잘 이용하여 내적 구조를 분석하면서도 이를 공간 문화적 맥락과 관련하여, 해석의 지평을 확대하고 텍스트의 새로운 의미의 가능성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3.2. 한국 전통공간의 유형적 특성

전통공간에서 발견되는 특성과 요소들은 잠재적인 가치와 의식이 기호화되어 발현된 것으로, 전통은 모방이 아니라 창작과 미학의 논리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사고체계 안에서 유형에 대한 해석은 전통적 요소들이 공간의 보편적 이미지 생성 요인으로 작용하여 디자인에 반영됨으로써, 한국적 정서를 기반으로 창출해낸 생활로서의 효용적 의미와 시각적 의미를 부여하여 한국적 이미지를 지속시키는데 논리적 가능성을 제공할 것이라 본다. 본 연구의 체계에 의해 그 내용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4. 한국적 공간디자인의 기호학적 분석

4.1. 공간디자인의 의미 지시자

(1) 공간

24)이홍우, 한국적 사고의 원형, 고려원, 1988, p.141

25)김영기, 한국인의 조형의식, 창지사, 1994, p.291

26)김용욱, 동서사유형태의 비교, 동서사상의 만남과 한국, 도서출판 一念, 1982, p.23

27)철학아카데미, 기호학과 철학 그리고 예술, 소명출판, 2002, p.40

공간조직은 환경에 대한 근본 특성인데, 이것은 의미조직의 양상으로서 스스로 의미를 나타내며, 의사소통적 특성을 갖고 있다. 공간의 의미는 벽이나 뚜렷한 분기점(break)에 의해, 또는 변화도나 변이에 의해 암시될 수 있다. 공간을 구성하는 목적은 의사소통(상호작용, 회피, 우세함 등)을 조직화하고 구상하는 것이며, 이러한 것은 의미를 조직화하는 것을 통하여 부분적으로 이루어진다.²⁸⁾

독일 철학자 Otto Friedrich Bollnow는 자신의 저서 『Mensch and Raum』에서 “공간은 인간의 행동을 통해 정복된다.”고 쓰고 있다. 독일어 ‘공간(Raum)’은 ‘정착’을 위한 장소를 의미하기 이전의 장소로 고정되는 않는 행동을 의미한다. ‘실존공간’은 수학적 공간과는 다르며, 그 자체의 질서와 안정을 소유하면서 직접적인 상황과 관계없이 존재하는 이미지이다. 인간의 삶은 ‘실존공간’ 즉, 공간 구조의 이미지 확립에 의존한다.²⁹⁾

공간의 볼륨과 둘러싸임의 정도, 폐쇄된 공간의 비율은 의미를 전달하며, 공간의 잠식 그 자체가 하나의 중요한 상징이 된다. ‘확산적’ 공간과 ‘수렴적’ 공간, ‘폐쇄적’ 공간과 ‘개방된’ 공간, ‘수직적’ 공간과 ‘수평적’ 공간으로 이항 대립되는 공간변수는 건축의미의 잠재적 전달자로 파악될 수 있다. 윤곽이 있는 공간은 경계를 만들고, 또한 경계를 제한함과 동시에 수축되는 구심적 공간을 나타내며, 개방된 공간은 내향적 움직임과 외향적 움직임, 그리고 공간적 침투성, 자유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람들은 각기 다른 위치에서 느끼는 공간에 대해 다르게 연상하며,³⁰⁾ 공간으로부터 얻은 정보는 정서적 반응을 일으키는 환경적 성질, 욕구를 자극시키는 동기적 메시지, 공간에 의미를 부여하는 상징적 속성을 갖는다.

(2) 형태

조형예술분야에서 기호에 바탕을 둔 조형언어나 시각언어 중에서 형태는 예술가들에게 있어 보다 구체적인 언어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개념은 형태를 취한다”라는 아른하임(R. Arnheim)의 명제가 의미하는 것처럼 형태는 개념을 담고 있다.³¹⁾

하나의 건축양식을 포함해서 형상과 형태는 의미를 전달한다. 조형적 측면에서 形을 결정하는 요소는 매스(mass), 볼륨(volume), 면, 선이 어떻게 가치를 부여하는가에 있으며, 건축공간에 있어서 형태들이 시각구조의 특성을 결정짓는 요소로는 기둥과 보와 같은 선형요소, 벽면이나 천장과 같은 평면요소, 그리고 이들 요소의 조합에 의한 단일의 공간을 구성하게 되는 볼륨요소로 구분된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볼 때 한국건축의 외관은 하늘을 의미하는 지붕부분과 땅을 나타내는 기단과 초석

28)Rapoport, op. cit. pp.239-241 요약

29) Noberg-Schultz, C. op. cit. p.29 p.37 참조

30)Lang, Jon, op. cit. p.314 참조

31)김영기, 한국인의 조형의식, 창지사, 1994, p.212

부분 그리고 이 사이에 인간의 삶을 수용하는 공간을 감싸주는 것을 의미하는 부분인 기둥과 창문들이 포함된 외벽 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세 가지 부분이 건축 외관에서 지각된다면, 이러한 외형이 전달하는 의미를 인지할 수 있다.

(3) 색채

공간에서 색은 의미를 다양하게 나타낸다. 이것은 사회적 관습을 통해 의미를 전달하기도 하며, 따라서 이러한 색의 의미는 사회적, 문화적 배경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학습에 의한 색지각은 신호체계 안에서 많이 연구되어져 왔다. 그러나 공간지각에서의 색지각은 공간의 전체적인 의미를 강화시키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즉, 색채는 인간의 공동생활에서 언어 이외의 또 다른 기호체계인 것이다. 형태와 마찬가지로 색채는 표현성을 가지며, 우리로 하여금 사물과 사건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통하여 정보를 얻게 해준다. 색채는 말과 문서 서술의 방법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정서를 대변하고, 감정에 밀접한 정보들을 상징화하거나 코드화된 형태로 표현하기도 한다.³²⁾ 따라서 색채언어를 이용한 정보전달의 대표적인 방법은 색채가 지닌 아이덴티티 기능을 이용한 것이다.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부호화 및 해독체계, 즉 공통언어로 된 의미지시자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색채는 환경을 말하는 언어이고 우리는 그것을 시간과 공간이 나타내는 모든 중요한 의미를 지각하기 위하여, 우리를 둘러싸는 세계에 존재하는 물체나 공간을 인식하기 위한 시각적 보조재로서 사용하고 있다. 색채란 의미를 내포한 시각정보이며, 인간의 의식구조와 연결된 이미지/정보체계로서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에 기여하는 매체로서 평가된다.

(4) 재료

재료는 물리적 속성에 의해 연상적 의미를 전달한다. 포실론은 형태는 매스를 설계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으며 모든 종류의 물질은 본질적으로 형태를 만들 수 있고 물질의 고유한 특성에 따라 예술의 형태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하며 재료를 강조한다. 재료의 최종적 가치는 항상 전통적인 용어로 측정되는데 관습과 사용을 통해 얻어진 가치에 의해 적합성이 판단된다. 이러한 관습적인 재료의 사용은 상징적 의미를 전달한다. 물리적 속성에 의한 고유특성들은 지속되는 반면 연상적 특성은 유행에 따른 가치평가의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새로운 상황에 있는 기존의 재료는 전위적이고 진보적인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³³⁾ 존 랑(John Lang)은 상징미학 부분에서 공간은 재료와 색채, 조명등의 여러 가지 수준의 표면구조로 되어 있으며, 이러한 요소들이 바로 의미지시자로서³⁴⁾ 정보로써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하게 된다고 했다.

(5) 문양

생태학적 지각에서의 공간의 의미 연구는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허쉬베르그는 환경의 의미가 문화의 학습에 의해 연상되므로 가장 가치있는 형태는 가장 많이 도입되어왔던 패턴이라고 하였다. 문양은 생활에 대한 주관적 의식의 반영으로 삶을 통한 문화활동의 소산임과 동시에 창조적 문명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문양은 언어 및 문자와 마찬가지로 민족이 살아온 환경에 따라 고유한 특성을 지니게 됨으로, 문양은 상징적인 사교의 산물로서 미적 감흥을 일으키는 자연의 형상과 질서, 물질의 작용을 상징하는 도상 및 부호체계로서 인간의 조형의식을 통해 종합적으로 형상화된 그림으로 정의되고 있다.³⁵⁾ 한 나라의 전통문양이란 사회, 경제적 요인과 기후, 풍토와 같은 자연적 요인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되는 문화적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형성된 문양은 오랜 기간 동안 반복과 변형의 과정을 통해 한 문화권에서 고유한 상징성과 특성으로 자리 잡게 된다.

4.2. 피어스 기호학에 의한 삼원론적 분석

기호학은 대체로 시각적, 언어적 담론들의 특수성을 존중하도록 잘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기호과정은 기호의 시각적, 언어적 실천들을 모두 포용할 뿐 아니라 기호-유형에 주목함으로써 소쉬르의 투사된 기호학은 언어영역을 초월해서 연구를 확장하도록 허용했지만, 사실 '기표'라는 용어는 언어의 경우를 모델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언어로는 전혀 번역할 수 없는 수많은 시각적 경험의 측면이 있다. '의미단위'를 예를 든다면, 언어적 영역에서는 최소단위인 단음(phone), 음소(phoneme), 형태소(morpheme)³⁶⁾로부터 단어, 문장으로 어렵지 않게 언어의 기본적 원자들을 골라낼 수 있다. 그러나 이미지에 들어서면 그 성질의 단위로서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피어스가 도상, 지표, 상징을 서로 구별해 놓은 덕분에 이것은 언어적, 시각적 양상들 간의 차이를 정확히 기술하는 확고한 초석이 되고 있다.³⁷⁾

인간세계는 느낌을 유도하는 감정적인 기호, 행태의 지침이 되는 기호, 그리고 사고에 영향을 주는 기호의 관점에서 연구될 수³⁸⁾ 있다. 본 연구에서는 피어스의 기호체계에 의해, 첫 번째의 기호를 도상으로, 두 번째의 기호를 지표로, 그리고 세 번째

35)신상재, 한국인의 생활문양, 선진문화사, 1980을 인용한 박영순, 한국전통문양에 대한 현대인의 의미해석과 태도,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001, 12, p.44 재인용

36)독립적인 언어 음이 단음이며, 특별한 유형의 단음은 소리 군으로 집합되는데 이것이 언어의 기본 단위인 음소이다. 그리고 음소는 의미를 가진 최소의 언어단위인 형태소를 생산하기 위한 규칙에 따라 조합된다. Stephen W. Littlejohn, Theories of Human Communication, Charles Merrill Publishing Company, 1978 p.88

37)노만 브라이슨 외, 기호학과 현대예술, 김용희·양은희 역, 시각과 언어, 1995, p.60

38)Rapoport, Amos, 정무웅 역, 건축환경의 의미론, 대광문화사, 1990, p.43

32)권은숙, 색으로 승부하는 21세기, 웅진출판, 1995, p.17

33)Malneal, J. M외, 인테리어 디멘션, 박영순·이현수 역, 디자인하우스, 1997, pp.387-394

34)Lang, Jon, op. cit. p.309

<표 3> 한국전통공간디자인 기호의 삼원구조-도상

기호 범주	의미 소	기호상황(Sign Situation)			의미 지시관계(Referent)		
		대상체(Object)	해석체 (Interpretant)	표현체(Representamen)			
도상 Icons	색채	 창덕궁 통명전	 경복궁 교태전 출처 : 한국실내디자인학회, 색채디자인, pp.136-137	• 색의 관념성 • 종교적 신앙의 표현과 敎理의 전달수단	 1호텔, Function Rm 설계: Rifenberg & Rirkrit	 Function Rm Carpet Pattern	단청이란 목조건축에 靑과 赤을 위주로 하여 黃, 黑, 白 등의 오색의 물감을 배색한 그림으로서, 단청의 목적은 목재보존의 기능적인 면과 장식을 통한 권위건축에 위엄을 주는 의장적 측면으로 볼 수 있다. 궁궐에서는 권위로서의 상징적 효과에 치중했으며, 사찰에서는 종교적 신앙의 표현과 교리의 전달수단으로 사용된 것으로 단청의 색채는 우리민족에게 친근감을 주는 요소로 작용한다.
	형태	 부석사무량수전	 제주 성읍마을	• 자연과 조화를 이룬 미적승화 • 인간의 정화된 의지로서 자연을 받아들이는 형국	 발안전주교회, 김영섭	 포도호텔, 이다미준	역학적으로 꼭 필요한 부재들뿐만 이루어진 기능적이고 수학적 인 구조, 그러나 구조자체를 노출시킴으로써 미학적 아름다움을 창조-한국의 건축은 목조가구식 구조가 주류를 이룸으로써 벽체가 하중을 받는 내력벽으로 작용하는 조적조와는 달리 구조재가 하나의 선으로 부각됨으로써 그 조형의 기저에 선적 구성을 이루게 된다. 기둥, 기단, 옹마루, 처마 등의 선적 구성으로부터 형태의 지각이 시작된다.
	공간	 근정전 동행각	 연경당	• 투명공간과 중용의 미학 / 무형중시 • 상대주의적 가치관	 1호텔, 연희장임구 설계 : Rifenberg & Rirkrit	 정토사, 김개천 출처 : 禪의건축, 2002	케페쉬(G. Kepes)는 그의 저서 시각언어(Language of Vision)에서 투명성을 과거의 기억들과 현재의 공간이 동시에 인식되면서 동적인 공간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투명성에 의해 경계를 상실한 공간은 유동적이고 상호침투적이다. 이와 같은 공간의 커들이 중첩되고 끼워진 조형언어는 부분과 전체가 조화로운 상호관계를 부여함으로써, 커뮤니케이션 수단인 도상적 공간기표로서 이미지 소통방식에 기여한다.
	문양	 한국전통문양		• 자연문 : 多福, 多壽, 多孫의 의미 • 창조문 : 건축의 격조를 표현	 1호텔, 로비라운지	 무진주, 이규석	원하는 표상적 부적 관념이 주술적으로 표현되고 도식화된 것이 생활문양이다. 즉 자연현상에서 장수를 염원하는 瑞氣를 찾고 동식물의 영상에서 오복을 갖춘 瑞像을 찾았으며, 길상어문에서 수목강녕과 무귀다남을 염원하는 瑞氣를 가진 한국인의 멋과 정서, 해학과 우아함, 그리고 절박함이 고유한 조형감각으로 여겨되어 형성된 것이다. 현대의 공간에 적용된 전통문양은 회화적 표현을 통하여 원래의 장식적 의미를 지니는 도상적 기호로서 작용함으로써, 전통이 현대적으로 변용된 친숙한 공간을 창출한다.
	재료	 향단	 병산서원 만대루	• 火, 水, 木, 土 : 자연소재/밤위와 색채와 속성 등 상징적인 의미와 인간세계의 위계 질서 부여	 임거당, 김효만	 등소현, 김영섭	한국조형에 있어서 사물의 질감이란 너무나 돌등에서 느낄 수 있는 결로서 그것은 각기 살아있는 존재로서 지니고 있는 깊은 숨결을 의미하며, 이것은 예술의 소재에 대한 우리의 감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감각은 우리의 모든 조형예술에 반영되어 있고,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의 결, 즉 질감이 창조되었다. 또한 독재의 사용에 있어서는 그 부드러운 질감을 자연스럽게 순화된 감정으로 승화된 깊은 맛을 내도록 배려하고 있다.

제의 기호를 상징으로 분류³⁹⁾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연구대상은 1980년대 후반이후의 한국성을 부여한 공간을 대상으로 하되, 특히 80년대 말 이후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기치아래, 한국문화의 세계화라는 좌우명에 의해 계획된 공간 및 공공공간을 연구대상으로 포함하였다. 조사공간을 중심으로 현대공간디자인의 한국적 특성을 규명함으로써, 이러한 과정을 통해 텍스트 산출자와 수용자, 발신자와 수신자 사이에 놓여진 텍스트 산출자(발신자)-텍스트(메시지)-텍스트 수용자(수신자) 상호간의 의미론적 해석을 시도한다.

이러한 의미코드에 의해 참조되는 문화적 의미는 커뮤니티에서 우선하는 철학적 사고로부터 추출된다. 기호로서 한국성에 대한 지원성의 삼항적 분류는 <표 3>-<표 5>와 같다. 공간에서의 형태, 색채, 질감, 위상적 배치 등은 모두 서로 다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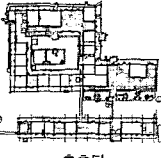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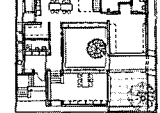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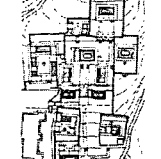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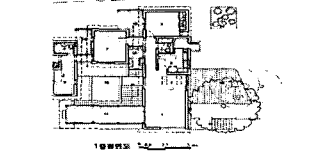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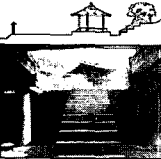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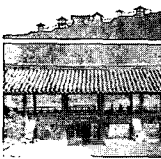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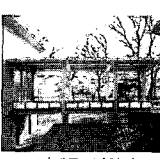
기표와 기의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기호들이다. 그러나 기호들의 의미작용을 통해 이들 모두가 지닌 공통점은 의사소통의 매시지로서, '한국성'이라는 발신자의 의지와 감정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공통된 기의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1) 도상(Icons)

퍼어스가 명료하게 설명하듯 도상적이라는 것은 그 대상과 관련을 맺는 기호의 성격이다.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 대상들을 환기시킬 수 있는 기호로서 간주될 때 가장 역할을 잘 발휘하는 셈인데, 그 이유는 그것이 기호자체와 유사한 대상을 상상하도록 제안하기 때문이다. 도상성은 먼저 기호와 대상 사이의 가설적 유사성에 기반을 둔 읽기의 한 양상으로, 인지의 효율성을 반영하고 있다.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기호화된 체형은 그 기호가 체형과 최대한 구조가 동일할 경우 저장하고 사용하기에 더 쉬울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도상은 지각적 유사성에 잠재적으로 관련된 물리적 요소로서 본 연구에서는 도상적 색채, 형태, 공간, 문양으로 분류하여, 전통공간의 원형적 요소를 대상으로, 현대공간에 표현된 전통요소를 표현체로, 잠재적 의미를 해석체로서 규정하여 내용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39)도상, 지표, 상징에 대하여 Miyazaki Kiyoshi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Icon: It refers to physical elements which are potentially related to perceptual resemblance. Index: It refers to perceptible elements affected by its use and circumstances. Symbol: It refers to elements which have established meanings by convention and shared idea., Miyazaki Kiyoshi, Seating Facilities Design as a Sign, JSSD Vol.46 No.4, 1999

<표 4> 한국적 디자인 기호의 삼원구조-지표

기호 범주	의미소	기호상황(Sign Situation)			의미 지시관계(Referent)		
		대상체(Object)	해석체(Interpretant)	표현체(Representamen)			
지표 Index	공간 구성 체계	출처:문화재청, 충효당 실측조사보고서, 2001  충효당	출처: 김봉렬, 앞과 삶의 공간, 1999, p.91  독락당일각	• 불교적 세계관 • 세속과 종교적 차원의 공간을 분립 • 유교적 사관: 위계적 공간질서/ 内外 上下, 賈主를 구별하는 공간 형성	 평심정, 우경국 출처:우경국 평심정 시공문화사, p.35	 필당, 정현화 출처:현대주택, 2003.3.p.95	공간에 구체적인 기능 이외의 프로그램이 개입되면 일상성과 비일상성이 중첩되어 여러 가지 의미가 발생된다. 전통주택에서 기능을 미리 확정하지 않은 방법론을 도입하고, 근대기술주의 주택에서의 거실, 서재와 응접실, 등의 분부를 섞어 현대도시 주거생활에 적절하게 반응하여 새로운 공간적 영역으로 재편된다.
	순환 체계	 도산서원	출처: 김봉렬, 앞과 삶의 공간, 1999, p.213  선교장	• 과정공간 / 집합적 건축군 • 비대칭적 대칭/ 무절서의 질서/ 탈절서의 격/ 동양적 무위사상	 미제루, 방철린 출처:이상건축, 1999, 12, p.82		한국건축은 공간의 위계성-주와 좌의 관계를, 고저 차이를 이룬다. 땅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전제된 공간배치, 실내공간과 외부공간과의 관계형성, '체' 개념의 현대적 변용으로, 한국적 공간구성의 원리들을 중시하는 계획으로 구성된다. 지형이 지니고 있는 고저차를 이용하여 3개의 공간의 크를 이루고 있는데, 전면부는 누각이 있고 후면부에 열려진 마당, 그 뒷편에 안방이 배치된다.
	비례 및 척도 체계	 추사고택	 도산서원 하교직사	• 휴먼스케일과 체형적 치수/ 실사구시 • 움직임과 관계되는 시간과 운동의 개념	 수죽당, 승효상	 수백당, 승효상	전통주거의 마당이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심리공간에 가장 적절한 크기로 이루어져 있음에 근거하여, '비워져있는 내부'로 수용되면서 공간은 그 마당 쪽과 건물 높이 사이의 비례에서 중정으로부터 쾌적하고 편안한 폐쇄감을 느끼게 된다. 여기에서 마당은 독립성과 독자적 고유기능을 가진 외부공간이며, 실내의 공간 상호간의 기능과 환경의 관계를 조절하는 적극적공간이다.
	사각 체계	 부석사 안양루	 병산서원 만대루	• 차경기법/ 관조성 • 물아일체의 정관적 특성/不二사상 • 전일적 사유방식	 미제루 단면도	 미제루, 방철린	시각 들은 관찰자로 하여금 특정한 시선방향에서 경관을 돋보이게 하는데 이는 그 공간을 인지하고 의의 있게 하는, 즉 공간에 장소성을 부여하는 기본적인 틀을 제공한다. 이는 현대공간체계의 전통 자연관이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에 관한 것으로, 프레임 속에 풍경이 삽입된 구조로서 자연은 공간 속에 투영된다.

<표 5> 한국적 디자인 기호의 삼원구조-상징

기호 범주	의미소	기호상황(Sign Situation)			의미 지시관계(Referent)	
		대상체(Object)	해석체(Interpretant)	표현체(Representamen)		
상징 Symbol	상징적 공간	 부석사	 철장사 사천왕문	• 종교적 상승감과 건축적 여정 • 기승전 결의 구성 • 종교세계의 은유적 암시	 [호텔, 프로미나드 설계: Pfenberg & Pirkrit	전통건축의 사찰 진입공간은 일주문, 천왕문, 해탈문의 세 가지 산문에서 종교적 상승감을 자아내는 직설적 상징성으로 나타난다. 사찰로 들어가는 진입 공간 속에는 종교적 긴장감을 유발시키는 건축적 여정이 연달아 나오며 이 과정에서 진입감은 종교적 상승감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종교적 상승감은 자연스럽게, 자연과 인공이 하나가 되듯, 긴장과 이완이 교대로 나타난다. 이는 건축적 산책로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상징적 공간 조직	 박영효 가옥	 광공각	• 음악의 상대성원리 • 無空의 공간 • 자연"과 인위"의 대조	출처:禪의건축, 2002  정토사 법당, 김개천	가번성은 공간들을 획일화하는 것이 아닌 원심성과 구심성을 지닌 공간구성 또는 인간중심의 공간조직으로 표현될 수 있다. 건물로 진입하여 창을 모두 열어젖히면, 하늘로부터 빛의 양기를 받아陰의 기운이 陽化되고, 내부에 활기를 불어넣는 인간의 생명력에 힘입어 陽의 공간이 된다. 반대로 내부에서 조망하는 외부는 음의 공간이 된다. 인간의 위치에 따라 변화하는陰과 陽의 성질은 고정적 음악의 개념과는 다른 가번적이고 상대적인 개념의 표현이다.
	상징적 장식 문양	 창덕궁 선정전	 경복궁 근정전	• 동양 전래의 五嶽 신앙 • 해와 달/ 음양사상 • 소나무와 파도/ 증포 사직의 영원한 무궁한 창달을 청송	 [호텔, 사무나홀 설계: 창조종합건축사사무소	오봉일월도에 보이는 다섯 봉우리의 산은 오악신앙과 관련이 있으며, 해와 달은 음양오행사상, 소나무와 파도는 왕을 비롯한 중요사직의 영원무궁한 창달을 청송하는 뜻이 담겨 있다. 장식의 의미는 작은 사물을 커다란 세계의 압축으로서 이해하고, 그 세계는 사물에 의해 설명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공간 자체가 주는 의미보다 장식에 대한 인간의 반응에 의해 그 장소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중요하게 이루어지므로 장식은 공간에서 장소로의 개념전이의 동인이 된다.
	상징적 색채	 서녕당	 오혜과 색채	• 음악오행/상생, 相補 • 자연과 우주의 질서와 운행원리 • 전색/ 南/ 陽의 색 • 청색/ 東/ 陽의 색 • 생명·생기의 색	 작품명:서울의 혼, 최재은	오행설은 천문지리학적 사상을 구현하여 방위, 절기 등을 가졌으며 색상을 이에 부합시켰으며, 間色은 방위의 중앙과 사방을 기본으로 삼고 그사이 8방과 16방의 간색을 설정하였다. 이 오행사상에 의한 五色彩를 근간으로, 여기에 사신사상을 도입하였다. 여기서 색채는 직물의 커버링(covering)을 통해서 해석과 암시를 허용하는 상징 또는 인용으로 사용되었다.

(2) 지표(Indices)

지표는 현실적인 대상물이나 경험한 사실을 지시하고 주목하고 기억하게 하여 반응하게 하고, 집중하게 하고, 현실적인 감각을 일깨워 주지만, 그 대상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술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지표는 공간적 측면에서 위에 정의한 바대로, 가시적, 조형적 측면의 치중이라기보다는 공간성의 재해석에 따른 추상적 개념을 바탕으로 마당과 채와 방의 구성에 의한 공간의 분절과 연속성, 위계성, 중첩성 등 한국전통공간에서 나타났던 특성들을 현대적 의미로 해석해서 적용시킨 양상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즉 사용과 환경에 의해 영향 받는 지각적 요소로 규정하여 공간구성체계, 순환체계, 비례 및 척도체계, 시각체계로서 범주화한다. <표 4>

(3) 상징(Symbols)

소쉬르의 견해에 따르면 상징은 기표와 기의 사이의 관계가 준자의적인(quasi-arbitrary) 기호로서, 정신적인 내용을 감각적으로 표현해야 하기 때문에 직관적인 유추작용에 의하여 결부시키는 상징조작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⁴⁰⁾ 다시 말하면 상징과 그 대상이 하나는 물질계에 속하는 것이고 하나는 정신계에 속하는 것으로 그 두 사항이 유추관계로 맺어져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징은 다른 두 개의 기호보다도 훨씬 강하게 그것에 생명을 불어넣는 해석행위에 의존하는데 그 이유는 그 해석 없이는 그것이 기호로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상징기호는 상징해석이라는 기호와 대상 또는 의미간의 상호관계의 관습적 규칙이 되는 것이다. 본 과정에서의 상징은 관습에 의해 의미를 획득하여 개념을 공유하는 요소로 규정하여, 상징적 장식, 상징적 공간, 상징적 공간조직, 상징적 색채로 분류한다.<표 5>

5. 결론

무기물인 건축공간은 石化된 氣로서, 공간은 그 형태와 기능의 측면에서 기의 잠재력을 표현한다. 道는 구체적이며 변화하는 사실성을 의미하는 반면 언어와 개념은 그것을 부당하게 고착시킨다는 생각이 道의 '영원 불멸성'과 서로 배치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더없이 구체적 사실의 세계인 道와 覺을 통하여 언어 또는 사고를 통한 부득이한 장벽을 뛰어넘어 명확성과 분명성에 들어설 수 있게 한다.

본 연구는 현재 고조되고 있는 한국성의 문화적 의미의 관심에 대응해서 전통공간의 의미효과를 발견해 낼 수 있는 관계체계를 유형화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으며, 피어스의 기호학 이론을 도입함으로써 한국적 디자인의 논리와 사고에 따라 공간 표현의 전개가 어떻게 분류될 수 있는가를 살펴보는 데 그 의의가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간기호학적 답론은 의미의 가치체계를 세우기 위한 구조와 그 관계성에 관한 논의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답론의

구조와 형식을 피어스의 기호학 연구에서 취함으로써 피어스의 기호학 이론이 공간의미를 분석할 수 있는 메커니즘으로 적합한 이론으로 판단되었으며,

둘째, 인간이 공간을 지각-반응함에 있어서 공간이 지닌 의미를 파악하는 일은 자신이 속해있는 환경 속에서 지각, 기억, 그리고 사고 간의 상호관계를 구체화하는 범주화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도상, 지표, 상징 및 대상체, 표현체, 해석체의 관계체계로 그 내용이 분류될 수 있다.

셋째, 건축과 실내공간은 사회문화의 반영체로서 문화기호학에서 공간의 의미는 가시적으로 드러난 실질과 함께 그 이면에 내재되어 있는 내용들이 결합되어 생성되는 것으로, 본 연구의 기호학적 체계는 이론적 분석을 바탕으로 하되 현상적 의미로부터 창조적 디자인 의미로의 사고체계 전환을 이룸으로써 공간에 있어 한국성을 가시화된 현상으로 표출되는 기표 속에 투입시키고자하는 접근방식의 모색으로서의 가치를 포함한다.

의미론을 기호에 내재한 사상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정의한다면, 본 연구는 가시화된 전통공간 속에 존재하여 잠재 속에 면면히 흐르고 있는 문화적 기호로서 보이지 않는 전통사상을 변화하는 현상 속에서 찾아내는 구체적 작업이라 하겠다.

참고문헌

1. 권영걸, 공간디자인 16강, 도서출판 국제, 2001
2. 김봉렬, 시대를 담는 그릇(한국건축의 재발견1), 이상건축, 1999
3. 김봉렬, 이 땅에 새겨진 정신(한국건축의 재발견3), 이상건축, 1999
4. 김성도, 현대 기호학 강의, 민음사, 1998
5. 박영원, 디자인기호학, 청주대학교출판부, 2001
6. 서울포럼, 아름다운 서울, ㈜서울포럼, 1991
7. 안영배, 한국건축의 외부공간, 보진재, 1996
8. 이동희, 한국의 철학적 사유의 전통, 계명대학교출판부, 1999
9. 임석재, 우리 옛건축과 서양건축의 만남, 대원사, 1999
10. 철학아카데미, 기호학과 철학 그리고 예술, 소명출판, 2002
11.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편, 색채디자인, 기문당, 2000
12. Eco, Umberto, 김광현 역, 기호 개념과 역사, 열린책들, 2000
13. Parret, Herman, 김성도 역, 현대기호학의 흐름, 이론과 실천, 1995
14. Stephen W. Littlejohn, Theories of Human Communication, Charles Merrill Publishing Company, 1978
15. Charles S. Peirce, Collected papers of Charles Sanders Peirce, Vol.1-6, Harvard University Press, 1932-1935
16. Elizabeth Mertz, Richard J. Parmentier, Semiotic Mediation, Sociocultural and Psychological Perspectives, London: Academic Press Inc.1985
17. Ferdinand de Saussure, A course in general Linguistics, New York, McGraw-Hill, 1966
18. Umberto Eco, A theory of semiotics,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76
19. Berger, Arthur Asa, Signs in contemporary culture: an introduction to semiotics. New York: Longman, 1984
20. Miyazaki Kiyoshi, Seating Facilities Design as a Sign, JSSD Vol.46, 1999
21. 權寧傑, 韓·中·日 傳統空間의 造營精神과 方法에 關한 比較研究,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2001
22. 박경애 외, 의미전달매체로서의 건축색채언어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7권 4호, 2001, 4
23. 이상해, 문화·공간도식과 한국전통건축, 유네스코 동서건축문화 비교 국제심포지엄, 1999. 10. 7
24. 월간 인테리어, 2002년 7월호, 현대주택, 2003년 3월호

<접수: 2005. 4. 30>

40) 소두영, 상징의 과학 기호학, 인간사랑, 1991, p.159